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단군상 설립반대 서명운동 펼친다

기독교계는 현재 모 종교단체주관으로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단군상'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중 십계명 제1 계명과 2계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사함을 직시하여 그 설립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서울교회도 이 서명운동을 통해 장차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신관(神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 한 분뿐이며 피조물 된 인간이 가져야 할 올바른 예배의 대상 역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가르치고자 지난 주일

부터 전교회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미 지난주에 975명이 서명을 마쳤으며 오늘도 분당 로비에서와 각 교회학교에서 계속하여 서명을 받는다.

우리가 서명한 이 용지는 총회로 취합되어 정부에 탄원서와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단군상 설립을 반대하는 우리의 굳은 신앙의지를 표시하는 이번 서명운동에 전교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성경대학, 경로대학, 주부대학 접수 시작

오는 4월 첫 주부터 개강되는 제11학기 성경대학과 4학기 살름경로대학, 제3학기 서울주부대학의 접수가 시작되었다.

우리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강좌는 '열린 교회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성도들이 평생교육의 소중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좋은 강좌를 듣기 원하였으나 시간과 장소 등의 제약으로 기회가 닿지 않았던 성도에게 이번의 강좌들은 훌륭한 교육의 장이며 여가선용이 기회가 될 것이다. 신청은 안내지를 참고하여 금주 주보 사이에 간지로 삽입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강료와 함께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10교구 가족소개 시간 갖는다 오늘 찬양예배시에

교회는 교구식구들의 친목과 연합을 위해 매월 3째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교구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오늘 찬양예배시간에는 10교구 순서로 교구의 전가족을 교회와 성도 앞에 소개하고 교구 가족이 함께 특별한찬양을 드린다.

연습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웨스트 민스터 홀에서 있다.

새가족부 '한가족 축제' 열린다 -4월5일 베델하우스에서-

새가족부(부장: 김세재장로)는 오는 4월 5일(식목일) 새 성전 이전 후 등록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가족축제'를 남양주시 소재 베델하우스에서 개최한다. 1부 예배와 찬양 축제, 2부 나눔과 공동체 축제, 3부 기도와 연합의 축제로 진행되는 본 축제는 당회원들과 교회 일꾼들을 함께 초청하여 한 영으로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연합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아울러 등록된 교인들의 가족 중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새가족부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중에 있다.

제21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임박

제21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홍보 및 모든 우편물의 발송이 완료되었으며 준비위원회와 각 여전도회, 남선교회 별로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아직 안내, 접수, 식당, 차량관리 등 많은 부서에서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번 목회자세미나를 함께 준비하고 봉사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사무국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고등부 오후 집회 및 고3 학생을 위한 기도결연

고등부(부장 오광환 집사)는 학생들이 주일을 말씀 안에서 올바로 지내도록 하기 위하여 고등부 오후 집회를 지난3월 첫주부터 갖고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이며 장소는 601호 실이다.

또한 다음 주일인 3월 24일에는 교회학교 분반공부가 마친 후, 10시40분부터 고등부실(601호)에서 금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입시 및 취업준비를 하는 동안 바른 신앙 안에서 건강한 몸으로 1년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기도 결연회를 갖는다. 금번에는 고3 학생 1명과 장로, 권사회, 살림권사회, 집사, 대학부 선배, 고등부 후배 등 7명이 한 조가 되어 1년간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서울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게 된다.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린다.

제18회 군중목사 후보생 수련회 -4월2일 우리 교회에서-

교회는 복음의 옥토가 될 군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게 될 군중목사 후보생들의 수련회를 지원키로 하여 4월2일 우리교회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이날 수련회는 특강과 좌담회, 만찬 등의 다양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군중목사로 훈련받는 후보생 목사들을 교육하고 위로하게 된다.

살인하지 말라(개혁개정판 출 20:13)
"You shall not murder. (NIV Ex 20:13)

2기 단기선교팀 신청

교회는 오는 8월 5일(월)부터 10일간 몽골로 파송되는 2기 단기선교에 참가 할 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뜻이 있는 성도들은 서둘러 신청하기 바람에 파송인원은 30명내외이다. 문의는 사무국이나 선교위원회(지도목사-이규정)로 하면된다.

비전2020후원자 명단(다음주에 계속)

- 이기범(10구좌) 이동권(3구좌) 이순창(3구좌) 이우상(3구좌) 이인숙(3구좌)
- 이중순(3구좌) 이주희(1구좌) 이준수(3구좌) 임인숙(1구좌) 장근우(1구좌)
- 장선자(1구좌) 장영지(1구좌) 장지원(1구좌) 정종순(2구좌) 정혜순(3구좌)
- 조동완(10구좌) 조응식(3구좌) 주화인(3구좌) 지성희(3구좌) 지혜영(3구좌)
- 진세훈(1구좌) 차복녀(1구좌) 천정화(3구좌) 표명자(2구좌) 한정아(10구좌)
- 현기욱(1구좌) 홍광숙(3구좌) 홍유식(3구좌) 한나전도회(3구좌)

농어촌100교회 결연연방

- 118 목양교회 윤봉준 · 김명화
- 119 재송중앙교회 홍지은
- 120 신덕교회 최홍렬 · 오충례
- 121 분천중앙교회 김광민 · 박민숙
- 122 안계제일교회 전수자 · 장두현 · 이미송

태신자 명단

- 김명희 김태우 최소연 김주영 신지호 김용찬 남병민 임관순 김은구 백중현 오재욱
- 임승규 유병부 정진욱 손윤도 류경희 정진우 이진아 국에나 고은영 고한성

(다음주에 계속)

이사야 강해

책망 받을 이스라엘

(이사야 59장 1 - 8절)

죄는 우리에게로 오는 하나님의 자비를 막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칸막이 벽과 같습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긍휼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고있는 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사망뿐입니다. 죄가 쓰는 것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를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지연시키고 도와주시는 일을 연기시킵니다. 죄는 우리를 복에서 분리시키는 저주의 본체입니다.



이종운 목사

선지자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이들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했고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와 기도를 열심히 드렸으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고 이것을 하나님 탓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잘못된 생각을 책망합니다.

1.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여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나님은 여전히 도울 능력이 있으시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지지 않았습디다. 그의 능력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고 제한되거나 단축되지 않았습디다.

하나님의 손은 약화되거나 줄어들지 않았습디다. 항상 강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십디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와 손이 짧으나"(민 11:23)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디다. 시간이 흘렀다가나 원수가 나타났다고 해서 능력을 짧게 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건 적건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디다. 수가 많거나 적거나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는 한 가지입디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전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②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1절).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십디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도를 들으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디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과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십디다. 하나님의 귀는 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듣기를 속히 하십디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사 65:24).

만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피곤하여 기도하지 않은 연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가 둔하였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디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입디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비로소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탓이라고 말합디다.

2. 그것은 그들 자신의 탓이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2절).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려고 그들에게 달려오고 계십디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시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렘 5:25).

죄는 우리에게로 오는 하나님의 자비를 막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칸막이 벽과 같습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긍휼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고있는 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사망뿐입니다. 죄가 쓰는 것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통하는 것이 있었습디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디다. 죄를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지연시키고 도와주시는 일을 연기시킵디다. 죄는 우리를 복에서 분리시키는 저주의 본체입디다.

또한 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사 1:15),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 66:18).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탓이 아니고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었습디다.

3. 그들의 죄목(3-8절)

① 피 흘린 죄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3절).

살인하는 죄, 중오하는 것, 잔인함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디다. 잔인과 중오는 남을 죽이기 전에 자신부터 죽이는 일입디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욥 5:2). 분노와 시기는 살인을 가져오는 행위이며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도전입디다.

② 입술의 죄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3절).

성경은 입술의 죄를 가장 위험한 것으로 말씀합디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약 3:5-6).

"거짓을 말하며"(4절).

거짓말과 악독을 말함은 혀의 두 가지 작용, 곧 진실하지 못하고 잔인한 것을 말합디다. 진실하지 못한 것은 다룰 때 거짓말을 하고 또 소송할 때 상대방을 이기려고 거짓말로 중상 모략하는 것입디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다통을 고쳐야 합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악한 자로 취급하시고 그를 책망하십디다.

③ 악행의 죄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4절).

악행을 잉태한다는 것은 남을 해할 계획을 세워 속에 품고 있는 것입디다. 이것은 결국 죄악을 낳게 됩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5절). 독사의 알은 품어 부화할 때까지 다른 알과 다를 것이 없습디다. 이처럼 악인들의 계획은 악하게 보이지 않습디다. 그러나 악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때 그 행위는 거미줄 같아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거미는 처마 밑에 거미줄을 쳐놓고 날아가는 벌레들을 잡아먹는 악한 곤충입디다.

"그 알이 밝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을 것이니라"(5절).

독사의 알같이 독 있는 죄를 먹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디다. 알을 밝는 자는 악인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입디다. 그 알에서 독사가 나타나면 그들도 결국 같은 해를 받게 됩니다. 악인의 실상은 벌거벗은 자와 같아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옷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디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롬 13:14).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해야 합디다. 죄는 악습이기 때문에 결코 적어지지 않습디다.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6절).

그들 손의 죄악은 포악한 행동으로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디다. 또한 그들은 발로 빨리 다니며 악을 행합디다. 강력한 열심히 악을 행하는 것입디다.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7절). 죄악 사상의 결말은 황폐와 파멸뿐입디다. 이런 악인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못살게 만듭디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악한 사람들의 양심은 항상 괴롭습디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 자신들의 죄 값이었습디다.

우리는 이제라도 죄에서 돌이켜야 합디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디다.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디다.

집중조명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장 이종윤 목사)의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지난 1992년 3월 개강 이래 10년 동안 1년에 2학기씩 빠짐없이 진행되어 총 20학기를 마쳤으며 현재 총 등록자가 4,790명에 이르고 이제 4월초에는 21학기를 개강하며, 어림짐작으로도 연 평균 480여명의 등록자가 있었고 1년에 2학기 20일의 강의가 진행됨을 감안한다면 연 수강인원은 만여명에 육박한다.

또한 총 수강자의 54% 이상이 서울 이외의 지방 거주자이며 제주지역에까지 수료자(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신학세미나는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수강생을 수료자로 분류한다. 편집자註)가 배출되었다는 것은 그간의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수강 열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음을 쉽게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신학세미나는 과연 어떠한 세미나이기에 수많은 전국의 목회자들을 몇 시간씩 걸리는 먼 거리도 마다 않고 이 세미나에 매주 참석하려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종윤 목사의 세미나의 취지에 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는 Text와 Context 두 가지 주제 모두가 심도 있게 다루어집니다. 즉, 깊이 있는 성경 강해를 통해 참석 목회자들은 영적인 충전과 말씀의 공급을 받고, 각 분야 전문 강사들의 수준 있는 강의를 통해 목회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식을 공급 받게 됩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학문적이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신학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학문적 지교성(Academic Excellence)' 과 '영적 성숙(Spiritual Maturity)' 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 2001년 20학기목회자세미나참석자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배웠던 신학공부의 내용과 양이 현장목회에 있어서 그 실용성과 절대량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 목회자 자신의 갱신에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은 다음의 1992년 순례자에 실렸던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9.8%가 한국교회는 크게 갱신되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이대로 좋다는 응답은 10.3%에 그쳐 대다수의 목회자는 현실교회에 대하여 스스로 불만을 표시했다. 갱신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느 부

분이 갱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목회자 자신의 갱신을 77.9%, 교회구조와 신학교육을 갱신해야 한다는 응답을 각각 15.8%씩 했다. 목회현장과 신학교육과의 불연속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신학교육내용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이 61.3%나 되었다는 것은 오늘의 신학교육을 책임진 이들에게 큰 경종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당시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의 성공프로그램의 소개와 벤치마킹(Benchmarking)의 방법론을 내세운 세미나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신학세미나는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신학교와 목회현장의 괴리감을 줄이고, 일선 목회자의 영성개발과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신학교육을 택하였고 일관되게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수해 왔으며 그 결과는 한국교회에 역동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술세미나로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계속 새로운 수강자가 밀려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장 목회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성공프로그램의 벤치마킹(Benchmarking)이 아닌 지속적인 말씀공부와 신학적 지식의 체득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바로 이 같은 국내 목회자들의 요구에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프로그램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한국교회 전체에 매년 새롭게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세미나는 성공한 세미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2002년 21학기 우편물 발송원로

편집부(김시환)

새로 왔어요

설교 말씀에 감동했어요

권혁달, 이수경 성도(4교구)

-두 권사님께서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등록 하셨다면요?

권: 토대신앙으로 여러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접해왔지만 이 목사님의 설교는 귀에만 즐거운 말씀이 아니라 가시밭의 백합화가 필수록 더 향기를 발하듯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말씀의 선포로 다가왔어요. 설교 말씀에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권유해주신 유관모 성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차곡차곡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예배 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꼭 인사를 드리는 것은 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입니다. 새가족부에서 공부하면서도 성도들의 '사랑'을 느끼며 이전에 출석할 교회 선택 때문에 무척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곳에서 25년간 교수생활을 하시고 교수부장 임기를 남겨두고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투신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권: 공사 교수부장 시절 영여성경공부를 하다가 당시에 신앙은 한여성경이 있었으나 친구약 합본 한여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여 저희들이 보려고

1985년 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친구약 합본 영어대조성경'을 개인적으로 나누어 쓰게 되었지요.

그런데 점점 판매수량이 늘어나면서 판매를 맡은 목사님이 격무로 인해 그만 두시고 또 아내가 말아 하다가 못하겠다 길래 1986년 교수부장을 그만두고 이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당초 성경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라 영여성경의 판권도 없이 성경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세계적인 성경보급사이며 영여성경 판권을 소유한 '토마스 벨슨' 사에 수 차례 연락을 했으나 도무지 회신이 없었고 10판을 찍을 때까지 계속 보고를 했는데 아무연락이 없어 직접 미국에 가서 그 회사의 변호사와 부사장을 만나 어려운 설득 끝에 판권을 따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했습니다.

-I.M.F로 고생도 하셨다면요?

권: 한여성경 유사품도 나오고 해서 판매량이 절반이하로 준 적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새성경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올해 벌써 20만 권 이상을 출판하고 있으며 3월중에는 구로 공단에 아파트형 공장을 세웠고 하반기에는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특가의 개역개정 합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맥내이들 내외와 함께 한 권혁달 · 이수경성도

† 부활절 계산법 †

부활절은 매년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온다. 이것은 춘분 다음 첫 만월 후 첫째주일이다.

초대교회 때에는 부활절 일자에 대하여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동방교회(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틴 관구)는 월력을 따르는 유대인의 유월절에 부활절을 적용시켰다.

서방교회(로마관구)는 십자가 처형은 금요일에, 부활절은 주일에 적용하였다. 서방 교회에는 일력이 중요하였고 동방교회에는 월력이 중요하였다. 이런 의견차이는 니케아총회(325년)에서 월력과 일력을 다 인정하여 부활절을 춘분 다음 첫 만월 후 첫째주일이 되도록 하였다.



Happy Easter



윤숙희 집사(6교구 7다락방장)

우리 다락방은 김포공항근처 서울 서쪽 끝이며 서울교회와 1시간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록 교회와는 먼 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다락방을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의 작고 아름다운 지체되게 하셔서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20대 새대에게서부터 70세가 넘으신 노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버스과 지하철을 바꿔 타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모이도록 하십니다. 어느 다락방이나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있겠지만 우리 다락방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고 받은 은사를 따라 역할 분담을 하는 다락방 운영, 전 다락방식구들이 말씀 암송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선 다락방 성경 공부는 수요일예배 후 다락방장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가감 없이 전하는데 이 때 다락방장은 목사님 말씀처럼 설교를 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말씀을 읽은 후 될 수 있으면 교재 내용을 돌아가며 읽고 순서를 따라 기도과 찬송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각 가정마다 한 주간동안 일어났던 기쁘고 감사한 일, 힘든 일등을 얘기하며 기도제목을 나누고 반드시 중보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다락방식구들을 위해 하는 기도소리는 천사들의 합창소리 같습니다. 또 우리 다락방은 다락방장 혼자 다락방을 운영하지 않고 역할 분담을 하여 각각 맡은 책임을 따라 역할을 감당합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G 집사님은 우리의 찬양을 인도하시고, 차분하신 K집사님은 '주간성경공부'를 맡아 공동으로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다락방의 막내인 S자매는 금년도 우리교회 암송말씀인 요한 2, 3서와 유다서를 우리 모두 암송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S자매는 얼마나 숙제검사를 철저히 하는지 각 가정을 방문해 보면 식탁 유리 밑에, 거실 벽에 그 주간 외울 말씀들이 여기저기 붙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역할 분담은 다락방 식구들이 좀처럼 결색을 하지 않는 제일 큰

다락방 모범 사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제의 시간도 우리 다락방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자랑입니다. 결코 부담스럽지 않은 메뉴로 정성껏 준비된 식사시간은 사랑의 대화시간이기도 합니다. 비록 교회는 멀지만 우리 다락방 모든 일을 교회 중심으로 하여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 등록된 가정을 잘 돌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간에 사랑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혜미 집사(1-17다락방장)

그 동안 신앙 생활하면서도 교회 일꾼으로 일하지 않던 내가 다락방장 임명을 받아 덜컥 겁도 나고 한편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이제 섬기는 도리를 시작해야겠다는 각오도 서게 되었다. 다락방에 배정된 10명은 작년과 올해 등록된 분들로 온아아파트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으며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였고 그 동안 다락방 모임에 참석치 않고 있었다.

그래서 첫모임 갖기 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전화를 안부를 묻고 기도제목을 알려 정성스레 초대장 카드를 만들어 발송하고 기도하며 편안하게 참석하도록 알렸다. 첫모임이 특별히 중요하므로 올 수 있도록 하여 '오지 않으면 내가 식은 밥을 먹게 된다'는 고충까지도 미리 말하며 꼭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주변에다가 기도해 주도록 요청하고, 나름대로 이들의 기도제목과 첫모임을 위해 집중 기도하였다. 나는 수요일다락방장 성경공부를 열심히 메모하여 나름대로 전달준비를 하고서 정성으로 빵도 굽고 점심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반수 이상은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인지라 오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보고 싶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못 온다면 분들이 여러 사정을 뒤로 두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절할 수 없음을 이야기 하셨다. 그 후 나와 동생은 담임선생님과 주위로 부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지금 20여년이 지난 이때에 다시 옛일을 쓰는 것은 온고지신을 하기위한 것이다. 단군상을 세우는 것은 얼핏보기엔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것 같이 느껴지나 결국에는 기독교적 사고가 흔들려 우리의 자녀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경배의 대상을 혼동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도 자녀를 둔 사람으로 그 당시 나의 부모님의 용기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과연 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돌아보게 된다. 나는 지난 주일 단군상설립 반대 서명을 하며 내가 처했던 상황에 우리의 아이들이 다시는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바른 예배드리기 원하면서 20여년이 지난 이때에 과거가 되풀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하다.

하고 첫모임 시간에 10명 전원이 참석하였다. 할렐루야! 모두가 서로 처음으로 얼굴을 대했지만 성경공부를 하면서 이내 다락방식구로서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기도제목도 나누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 후로 모임은 모든 다락방식구들이 참석하는 아름다운 교제와 권면, 격려의 장으로 되면서 은혜롭게 기도를 나누고 떡을 떼는 것으로 계속되고 있다.

먼저 우리 다락방은 참석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출석률이 거의 100%이고 너무 길지 않도록 교제시간 포함하여 약 90분 정도로 진행하고 마친다. 그래서 서로가 시간에 구애받아 참석을 주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다. 예배 시간은 30분, 기도제목 나누기, 중보기도는 20분, 교제는 40분 정도이다. 둘째, 중보기도가 뜨겁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돌아가며 그것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기도한다. 셋째, 참석치 못한 가정은 주중에 별도로 한 시간 정도 심방하여 합당한 말씀을 찾아 같이 읽고 합심 기도를 한다. 그럼으로써 또 다른 개인기도 제목을 상세히 파악하게 된다. 다락방의 비전도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그 첫번째가 나오지 않는 남편들을 인도하는 것이며,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예수를 전하고 받은 은혜로 모두가 섬기는 교회일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멀리면서 시작한 다락방장의 일이 돌아보니 사실은 나의 신앙에 너무도 유익하며 도움되는 것을 발견하여 개인적으로 은혜이며 감사할 따름이다.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어 일꾼으로 삼으심에 감사하며, 섬기면서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교회에 더욱 충성하리라 다짐한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8일(월)~20일(수)까지 침례신학대학(대전), 신대원연합수련회를 인도한다. 21일(목) 연세대 동문회보 창간70주년기념식에서 개회기도를 인도한다.
- 박정선 집사(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는 3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 국립합창단 97회 정기연주회에서 작곡발표를 한다
- 손병석 집사 현대건설 상무 진급(3월 1일 부)
- 이미영·박원탁 성도 득남(미국뉴욕)
- Jesse Pangelinam, 권현순 성도 득남(7교구)
- 김호찬·손은주 득남(4교구)
- 노병호·홍지나 성도 득녀(12교구)
- 남영주 집사 7-12교구로 이사(375-0504)
- 광주 벨엘교회 - 김치 2 box 기증

☒ 금주의 식사제공: 이덕빈 집사·한금희 권사 (자녀의 결혼을 감사하며)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온고지신(溫故知新)

김선미 성도 (8교구)

70년대말 ~ 80년대초에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교정에서 있던 이순신장군동상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다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군인출신으로 조희시간이나 연설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순신장군에 관하여 이야기 하곤 했었다.

그러던 어느날 모든 학생(부속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를 포함)에게 이 이순신동상을 보고 절을 하라는 훈시를 하고 그 다음날 부터 교사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절을 해야만 했다. 이 모든 이유는 애국심을 고취한다는 명목하에서였다. 이 일 을 안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십계명의 제12계명에 위배됨으로 절대 절하지말며 당당하게 선생님께 기독교인임을 말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이 일의 부당함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1 학기목회자세미나 · 성경대학 · 경로대학 · 주부대학을 위하여
2. 사순절 절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